

대순사상의 태극에 관한 연구*

- 주자의 태극과 비교를 중심으로 -

최치봉

대진대학교 · 박사과정

I. 서론
II. 주자의 태극
III. 대순사상의 태극

IV. 대순사상에서 태극의 특징
V. 결론

I. 서론

태극(太極)이라는 개념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은 실로 방대하다. 11-12세기를 거치면서 등장한 신유학의 태극론은 도(道), 리기(理氣)¹⁾, 음양(陰陽)과 연계되어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어 왔으며, 중국과 한국의 본체론과 수양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신유학에 서의 태극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논의는 주자(朱子, 1130-1200)의 본체론이 그 중심에 있었다. 주자학은 조선 유학의 본체론과 수양론에 관한 이론체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조선의 건국부터 이조말엽까

* 본 논문은 한국종교학회 주최의 2014년 춘계한국종교학대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철학적 용어'로 '리(理)'는 한글 표기의 경우 '리'로 표기하였다.

지 한국사상계에 흐르는 커다란 맥이었다.

이러한 주자학의 영향은 19세기 이후 개창된 여러 신종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특히 대순진리회에 있어 주자는 유교의 종장(宗長)²⁾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증산(甌山 姜一淳, 1871-1909)께서는 주자의 저서에 대해 매우 잘 알고 계셨으며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주자가 해석한 『대학』의 문구를 외우도록 명하기도 하셨다. 그리고 증산께서 언급한 “리가 비록 높으나 무극태극의 길에서 나온다.”³⁾라는 글은 주자의 사상으로, 증산께서 리(理)학을 숙지하고 계셨으며 이를 중시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⁴⁾ 또한 정산(鼎山 趙哲濟, 1895-1958)께서는 교단창설과 교리성립 과정에서 많은 부분 성리학 용어를 방편적⁵⁾으로 사용하셨으며, 특히 “도(道)는 곧 리(理)요”⁶⁾라고 하여 성리학적 형이상학⁷⁾을 언급하셨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주자의 태극을 통하여 대순사상의 태극을 살펴보는 것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대순사상의 본체론과 상제관을 이해하는데 있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대순진리회에서 언급되는 태극과 리·기·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태극의 특질을 밝히고자 한다. 태극은 대순사상의 본체론과 상제관 등과 연관되어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2) 『전경』, 교운 1장 65절.

3) 같은 책, 제생 43절, “理雖高 出於無極太極之表”

4) 왕종위는 『전경』 내의 유가 사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① 증산 성사와 도주께서는 유가의 경전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② 증산 성사와 도주께서 알고 계시는 유파는 송대 이후의 리학파(理學派)이다. ③ 유가 경전의 내용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유가사상에 대해 창조적으로 이해하고 적용시키셨다. 왕종위(王宗昱), 「대순사상의 종교 문화 조화정신」, 『대순사상논총』 22 (2014), pp.99-100 참조.

5) 교단의 창설에 있어 새로운 교리와 사상을 설명할 때, 기존의 용어를 빌리지 않고는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없다. 유불선의 정수를 취하고 그것을 포괄하는 사상을 말함에 있어, 정산께서는 태극이라는 기존의 동양본체론에 주목하셨던 것이다.

6) 『무극대도교개황(無極大道敎概況)』,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역 (일본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1925) 참조;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조선의 유사종교』, 최길성·장사언 역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p.274.

7) 『주자전서(朱子全書)』, 卷7, “陰陽, 氣也, 形而下者也. 所以一陰一陽者, 理也, 形而上者也. 道即理之謂也”(음양은 기로서 형이하의 것이다.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게 하는 것은 리로서 형이상의 것이다. 도는 곧 리를 이르는 것이다.)

할 연구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자료의 부족과 주제의 난해함으로 인해 아직까지 그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대순사상에서의 기존 연구를 보면 차선근은 무극과 태극과의 관계를 통하여 종단의 변천⁸⁾ 및 정역사상과의 비교⁹⁾를 시도하였으며, 박재현은 무극과 태극을 통하여 신앙의 대상을 이해¹⁰⁾하려고 하였다. 기존의 논문들은 태극과 무극에 관한 기존의 학설을 정리하여 대순사상에서 그것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가치가 있으나, 태극 자체의 특질 규정이나 의의를 밝히는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무극과 태극의 관계규정에 논의의 중심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논문의 II장에서는 주자의 태극에 대한 개념과 리기와 도에 관하여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대순진리회 창설유래에서 언급되고 있는 무극과 태극의 관계를 살펴보고, 지리(至理)의 소이재(所以載), 지기(至氣)의 소유행(所由行), 지도(至道)의 소자출(所自出)을 중심으로 주자와 대순사상의 리·기·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대순사상에서 보이는 태극의 본체성과 더불어 신화(神化)의 개념을 통해 본 태극의 주재(主宰)에 대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주자의 태극

태극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은 『주역』¹¹⁾이다. 여기서는 생성론으로 볼 수 있는 ‘태극 → 양의 → 사상 → 팔괘’의 과정

8) 차선근, 「종단 대순진리회의 변천 과정과 무극 태극의 관계」, 『대순회보』 94 (2009)

9) 차선근, 「정역사상과 대순사상의 비교연구」, 『종교연구』 60 (2010).

10) 박재현, 「대순사상에서의 무극과 태극 그리고 대순의 의미 고찰」, 『대순사상논총』 22 (2014).

11) 『주역』, 「계사전」, “是故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그러므로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생하고, 양의는 사상을 생하며, 사상은 팔괘를 생한다.)

이 나타나지만, 태극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후대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양산하게 되었다.¹²⁾ 태극을 본체로 여길 때 학자들마다 태초(太初), 태일(太一), 무(無), 기(氣), 리(理), 심(心) 등으로 해석하였는데,¹³⁾ 이 중 태극을 리로 여기는 성리학은 송대에 도가 및 불가의 형이상학에 대항할 유가의 체계정립 요구에 부응하여 발생하였다. 이러한 성리학 이론체계의 중요한 문헌은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태극도설』이다.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으로 시작되는 존재생성론과 관련된 구절¹⁴⁾에 대하여, 정이(程頤, 1033-1107)는 “음양은 기로서 형체가 있는 형이하자이며 음양의 근거가 곧 리”라고 말하면서 송대 이전에 기를 태극이라고 보는 체계를 비판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은 주자는 태극을 형이상자, 도(리)로 해석함으로써 본체론을 규명하고, 성리학적 형이상학의 토대를 정립하였다.¹⁵⁾ 이에 먼저 주자의 태극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무극과 태극의 관계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무극과 태극

주자의 무극과 태극에 대한 견해는 주·육 논변¹⁶⁾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이 논쟁에서 주자는 “무극을 말하지 않으면 태극은 하나의 물건이 되어 모든 변화의 근거가 되기에 부족합니다. 태극을 말하지

12) 등구백(鄧球柏)은 그의 저서 『주역적지혜(周易的知慧)』에서 태극에 관한 31가지 주요 해석을 소개하고 있다.

13) 정병석, 「태극 개념 형성의 연원적 배경과 해석」, 『철학』 88 (2006), pp.45-60 참조.

14) 『태극도설』,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 陽變陰合 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 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 太極本無極也 五行之生也 各一其性 無極之真 二五之精 妙合而凝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 萬物生生 而變化無窮焉.”

15) 임현규, 「주·육태극논변과 형이상학」, 『한국철학논집』 17 (2005), pp.376-380 참조.

16) 『태극도설』에 관한 주·육 논변은 세 가지 문제로 귀결된다. 첫 번째는 ‘無極而太極’에서 ‘無’가 노자사상에서 근거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 두 번째는 ‘極’자를 어떻게 풀이하느냐의 논의, 세 번째는 형이상·형이하의 구별로 理(道)와 氣(器)에 대한 논의이다. 장윤수, 『정주철학원론』 (서울: 이론과 실천, 1992), pp.406-409 참조.

않으면 무극은 공허로 흘러버려, 모든 변화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¹⁷⁾라고 하여, 주돈이가 후세 사람들이 태극을 형체가 있는 하나의 사물로 오해할까 걱정해서 특별히 무극 개념을 사용하여 본체로서의 태극이 형체가 없는 리임을 밝히고자 했다는 것이다. 주자의 관점에 따르면 무극과 태극은 결코 생성·피생성의 관계가 아니며, 무극이 먼저 있고 나중에 태극이 있는 선후의 관계도 아니다. 또한 태극 밖에 별개의 무엇이 있어서 무극이 되는 관계도 아니다. 결국 주자는 태극이 곧 우주의 본체이며, 무극이란 이 우주의 본체가 형체가 없음을 드러내고자 동원된 개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주자의 언어에서 ‘태극-리’는 초월성과 당위계를 의미하며, ‘음양오행-기’는 현실성과 존재계를 의미한다. 『태극도설』에서는 ‘무극이태극’이라는 명제를 통해 초월성과 현실성 사이의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월자의 초월적·보편적 온전성을 강조하다보면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우며, 한편 현실자의 개별성과 국한성을 인정하다보면 초월적이기 어렵다. 초월자는 현실의 국한성과 제약성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항구적인 지향성을 제시해주는 자로서 소당연(所當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과 무관한 원리·원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원리·원칙은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현실에 기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원리·원칙이 바로 태극이다. 그 초월성은 무극으로 묘사하지만 주자의 구조에서는 무극과 태극은 결국 동일자이다.¹⁸⁾

태극은 현상계 일체 사물의 존재 근거이며 그 운동과 변화의 법칙이다. 주자는 현상계의 일체 사물은 모두 음양이라는 대대적 속성의 상호전이와 상호교섭을 통한 운동의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태극은 바로 이 음양 상호전이의 내재적 법칙인 리이며, 스스로는

17) 『주희집』, 卷36 「답육자미(答陸子美)」 1書, p.1567, “不言無極, 則太極同於一物, 而不足爲萬化之根, 不言太極, 則無極淪於空寂, 而不能爲萬化之根.”

18) 주광호, 「주희와 육구연의 ‘무극태극’ 논쟁」, 『철학연구』 36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08), pp.482-489 참조.

운동하지 않지만 일체 현상계의 운동·변화는 모두 이 내재적 법칙에 의거해 발생한다. 때문에 “태극이 곧 동정의 운동”이 아니라 “태극에는 동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¹⁹⁾ 즉,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운동과 변화의 원리가 되는 것이다.²⁰⁾ 주자의 태극개념은 모든 함의에서 파생과 확장 및 운동과 변화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운동과 변화는 ‘현재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그러한 운동과 변화의 근거 혹은 원리 역시 ‘현재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자가 세계를 끊임없는 운동과 변화 및 생성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²¹⁾

태극은 인간계의 사물을 떠나 독립한 하나의 물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하나의 태극을 갖추고 있으며, 사물마다 모두 하나의 태극을 갖추고 있다.²²⁾ 이것은 사람과 세계의 만물이 태극이라는 동질성과 유기성을 갖추는 의미한다. 이러한 태극은 지선(至善)의 것으로 선과 악이 짝이 되는 상대적 차원에 있어서의 선이 아니라 상대적 선악을 넘어선 궁극의 선을 표상(表象)한다. 이에 주자는 “태극은 다만 지극히 좋은 지선의 도리일 뿐이다. … 천지, 사람과 사물에 있어 온갖 선한 것과 지극히 좋은 것의 표덕(表德)이다.”²³⁾라고 하였

19) 김경호, 『동양적 사유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과주: 글항아리, 2012), p.177, “제가 지난번에 태극을 본체, 움직임과 멈춤을 작용이라고 했는데 그 말에 본래 잘못이 있어서 뒤에 이미 ‘태극은 본연의 묘함이고, 움직임과 멈춤은 태극이 타는 기틀’이라고 고쳤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거의 본래의 뜻에 가깝게 될 것입니다. 본체의 측면에서 태극이 움직임과 멈춤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옳고, 유행의 측면에서 태극에 움직임과 멈춤이 있다고 한 것도 옳습니다. 만약 태극이 곧 움직임과 멈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형이상과 형이하를 나눌 수 없게 되고 ‘역에 태극이 있다’는 말 또한 군더더기가 됩니다.(『朱子大全』, 卷45 「答陽子直」, 熹向以太極爲體・動靜爲用, 其言固有病, 後已改之曰‘太極者, 本然之妙也, 動靜者, 所乘之機也’. 此則庶幾近之(…) 蓋謂太極含動靜則可, (以本體而言也.) 謂太極有動靜則可, (以流行而言也.) 若謂太極便是動靜, 則是形而上下者不可分, 而‘易有太極’之言亦贅矣.)”

20) 같은 책, p.175, “천지간의 만물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까닭’과 ‘마땅히 그래야 하는 법칙’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理이다.(『대학혹문』 第1章, 天地之物, 則必各有所以然之故, 與其所當然之則. 所謂理也.)”

21) 주광호, 「주희 태극론의 ‘생성’의 원리, 『철학연구』 98 (대한철학회, 2006), pp.297-298.

22) 『주자어류』, 卷94, “人人有一太極 物物有一太極”

23) 『주자어류』, 卷94, “太極只是箇極好至善底道理 … 是天地人物萬善至好底表德”

다.²⁴⁾ 음양오행의 조화의 심오한 법칙이 되는 것과 인의예지, 강유, 선약의 인간 법칙이 되는 것도 태극이고 리이다. 자연 법칙과 인간 법칙의 일체인 리를 자기의 본성으로 여겨 본래대로 편안히 살아가는 사람은 성인이고 리를 의식하고 실천하여 간직하는 사람은 현인이다. 따라서 태극은 리이자, 자연법칙과 인간 법칙을 통칭한 것이다.²⁵⁾

2. 태극과 리·기·도

1) 형이상학의 리(理)

주자의 리기관은 정이의 리와 장횡거(張橫渠, 1020-1077)의 기에 영향을 받았다.²⁶⁾ 주자는 정이와 마찬가지로 『주역』의 도와 기(器)를 리와 기(氣)로 나누어 이해하여 추상적인 형이상자를 리로, 구체적인 형이하자를 기로 보았다.²⁷⁾ 또한 모든 물(物, 사람과 만물)에 리가 내재되어 있고, 사물이 있으면 곧 리가 있으며,²⁸⁾ 물에서 리를 떼어 놓을 수 없다고 하였다. 리와 물(器, 氣)의 선후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적, 논리적 범주로 나누어 설명한다. 현실적(시간적)으로는 공존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리가 먼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선재하는 논리적인 리를 ‘소이지리(所以之理)’라고 한다. 현실적으로는 공존하면서도 논리적으로는 선재하고 있는 리의 완전성을 주자는 극(極)이라고 부른다. 일사물(一事物)의 리는 그 사물의 완전형식이며 따라서 그 완전형식이야말로 그 사물의 최고표집(最高標集)이며 이것이 곧 극이라는 것이다. 주자는 개개만물의 리와 총체만물의 리를 극으로 표현하는데 개개

24) 정상봉, 「주자형이상학의 심층구조- 태극에 대한 이해」, 『한국철학논집』 33 (2012), p.263.

25) 오하라 아키라, 『범주로 보는 주자학』, 이형성 옮김 (서울: 예문서원, 1997), p.80 참조.

26) 안은수, 『주희의 자연관 형성의 두 원천』 (서울: 문사철, 2010), pp.140-188.

27) 『주희집』, 卷58 「답황도부서(答黃道夫書)」, “理也者 形而上之道 生物之本也 氣也者 形而下之器 生物之具也”

28) 『주자어류』, 卷4, “才有物 便有理”

의 경우 ‘극’이라 하고, 총체의 경우를 ‘태극’이라 한다.²⁹⁾ 즉, 태극은 천지만물의 리의 총화이므로 태극 가운데 만물의 리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본다.³⁰⁾ 기(器)와 형(形)은 없지만 천지 만물의 리가 여기에 있지 않음이 없기에 “무극이면서 태극이다”라고 하고, 그 천지 만물의 리를 구비하지만 기와 형이 없기 때문에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라고 한다.³¹⁾

주자는 리를 핵심으로 하여 중국 철학사에서 가장 정밀한 본체론 철학을 구축하였다. 주자는 리가 우주의 본체이며 천지만물은 모두 리로써 존재의 근거를 삼는다고 생각하였다.³²⁾ 우주본체인 리는 만물이 생성되기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였고 만물이 소멸한 뒤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리는 삼재를 내포하고 시공을 초월하는 실체이다. 주자가 말한 천(天)에는 ‘창창(蒼蒼)한 자연천’과 ‘주재(主宰)의 천’이 있다. 그 중에서 ‘주재의 천’은 리와 같은 뜻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리를 ‘천리’라고 불렀다. 또한 ‘주재의 천’이 ‘창창한 천’을 주재하기 때문에 천은 리로써 근거를 삼는다.³³⁾ 천리는 인위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 ‘성(誠)’의 속성을 지닌다.³⁴⁾ 성의 본뜻은 천체의 운행규율이 가지는 자연성과 필연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자는 성으로 천리의 필연성을 개괄하고 인사에서는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여 천인을 관통시켰다.³⁵⁾ 천리

29) 『주자대전』, 卷94, “事事物物이 모두 하나의 極을 가지고 있으니 이는 眞理요 極至이다. … 「이것은 一事一物의 極이요 總天地萬物之理는 즉 太極이다. 太極은 本來 이름이 없고 다만 하나의 表德일 뿐이다.”

30) 류정동, 「정·주의 태극론」, 한국동양철학회 엮음, 『동양철학의 본체론과 인성론』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4), pp.103-105 참조.

31) 오히마 아키라, 앞의 책, p.79.

32) 『주희집』, 卷70 「속대기(續大紀)」, “宇宙之間, 一理而已. 天得之而爲天, 地得之而爲地, 而凡生於天地之間者, 又各得之以爲性.”(우주기간에는 ‘하나의 리’뿐이다. 하늘은 그것을 얻어서 하늘이 되고 땅은 그것을 얻어서 땅이 된다. 천지간에 생존하는 모든 것들도 각각 그것을 얻어 성으로 삼는다.)

33) 『주자어류』, 卷25, “天之所以爲天者, 理而已, 天非有此道理, 不能爲天.”(천이 천되는 것은 리일 뿐이니 천에 이러한 도리가 있지 않으면 천이 될 수 없다.)

34) 같은 책, 卷64, “誠是實理, 自然不假修爲者也. … 誠是天理之實然, 更無纖毫作爲.”(성은 참된 리이니, 스스로 그러하여 인위를 빌리지 않는다. … 성은 천리의 참된 것으로, 털끝만큼의 작위도 없다.)

35) 같은 책, 卷69, “誠是實然之理, 如實於爲善, 實於不爲惡, 便是誠.”(성은 참으로 그러

는 자연하고 진실하여 거짓이 없으니 자연한 천리는 ‘리일분수(理一分殊)’의 성질을 갖는다. 이른바 ‘리일분수’에서 천리는 다만 하나일 뿐이지만 분수인 만물 속에 각각 하나의 리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사물물 속에 존재하는 리는 사물의 당연한 도리 또는 사물의 그와 같은 근거이다. 일리가 만수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리가 사물의 소당연한 근거라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리일분수’의 원칙을 파악할 수 있다.³⁶⁾ 개개의 사물들은 모두 리에서 발생한 것이며, 개개의 리는 분할되거나 부족한 리가 아니라 완전한 리이다. 따라서 주자 철학에서 리는 우주의 본체론과 생성론을 통일하는 범주이며, 천리와 인사의 합일을 통한 도덕성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³⁷⁾

2) 형이하의 기(氣)

중국에서 기는 원래 생명력, 활동력, 또는 그러한 힘을 갖춘 것, 아니면 그러한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였고, 물질의 근원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이 물질의 소재로서 존재론의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은 장횡거와 이정(二程)형제에서 시작되어 주자에 의해 완성되었다. 주자는 기존의 기에 만물의 형질을 구성하는 물질적 근원이라는 의미를 더하여 새로운 기의 개념을 만들어 내었다.³⁸⁾ 또한 음양·오행을 물질 구성 요소로 하여 새로운 기의 개념 속에 넣었다. 특히 오행은 여러 가지 물(物)에 그것을 배당하여 그 힘에 의해 서로 순환한다는 설명을 함으로써 분명히 물질의 구성요소로서 성격이 부각되었다.³⁹⁾ 주자의 기(氣)를 리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천지

한 이치이니, 만약 참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성이다.)

36) 같은 책, 卷121, “見天下事無大無小, 無一名一件不是此理之發見.”(천하의 일은 대소를 막론하고 어느 하나도 리의 발현이 아닌 것이 없다.)

37) 장입문, 『리의 철학』, 안유경 옮김 (서울: 예문서원, 2004), pp.229-233 참조.

38) 장입문, 『기의 철학』, 김교빈 옮김 (서울: 예문서원, 2012), pp.311-320 참조.

39) 이동희, 『동아시아 세계관의 원천 주자』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pp. 147-149 참조.

사이에 리와 기(氣)가 있는데, 리는 기의 근본이다. 둘째, 리는 형이상의 도요 생물의 근본이며, 기(氣)란 형이하의 기(器)요 생물의 기구이다. 도·기(器)의 구분은 매우 명백한 것이기에 어지럽힐 수 없다. 셋째, 리·기(氣)란 혼란하여 나눌 수 없으므로 선후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유래된 바로써 이치를 추구해 보면 “반드시 먼저 리가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인(人)·물(物)이 태어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태극의 리와 이오(二五)의 기(氣)가 묘합하는 것이며, 이치와 기운이 합하여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⁴⁰⁾

주자는 “태극이란 본연의 오묘함이며, 동정이란 타는 기틀이다”⁴¹⁾라고 하여 본연의 오묘함은 탈 수 있는 기틀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며, 음양은 동정을 생하는 것이라 하였다. 즉, 리가 기틀위에 신려 음양을 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형이상의 리가 어떻게 형이하의 기에 작용하는지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주자는 ‘신화(神化)’의 개념을 사용한다.⁴²⁾ 본체론에 있어 태극과 리기가 존재와 관련된 개념이라면 신화는 기능이나 작용과 관련된 것이다. 리기개념은 신화와 결합해야만 비로소 자연계의 존재와 그 발전을 설명할 수 있다. 신화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신(神)과 화(化)의 합성어로 신은 형이상의 차원이고 화는 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이하의 차원이다. 다시 말하면 신은 본체론적 용어이고 화는 신에 의해 화한 기의 작용을 말한다. 신과 화의 개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주역』이며, 그것은 변화지도를 나타내고 있다. 『주역』에서 신이란⁴³⁾ 신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음양 두 기의 작용이며, 이것은 모든 변화의 근원이 된다고 하였

40) 후외려, 『송명이학사2』, 박원식 옮김 (서울: 이론과실천, 1995), p.27 참조.

41) 『태극도설해』, “太極者, 本然之妙也, 動靜者, 所乘之機也.”

42) 귀신(鬼神)에서의 신과 신화(神化)에서의 신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앞의 개념은 음양론에서 언급되는 양의 속성이며, 뒤의 개념은 태극의 오묘함이며 기능과 작용에 있어서의 본체적 개념이다.

43) 『주역』, 「설괘」, “神也者, 妙萬物而爲言者也.(신이란 만물을 신묘하게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繫辭上」, “陰陽不測之謂神.(음과 양의 변화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신이라 한다)”, 「繫辭上」, “知變化之道者, 其知神之所爲乎!(변화의 도를 아는 사람은 신묘하게 펼쳐지는 천지의 일을 아는구나)”

다.⁴⁴⁾ 이에 주자는 신과 사물의 동정을 논할 때, 사물의 동정은 형이하의 기(器)이고, 신은 형이상의 리라고 하였다. 이는 형이하의 사물은 동정이 서로 통할 수 없지만, 형이상의 리는 동정이 서로 무궁하게 섞여있어 멈춤 가운데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 가운데 멈춤 있으며, 멈춤어도 움직일 수 있고 움직여도 멈출 수 있다는 것이다.⁴⁵⁾ 이에 신은 (음양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 음이 되고 양이 되는 것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며, 주야(晝夜)는 아니지만 주야로 변하게 하는 것이다. 주자의 관점에서 자연계는 하나의 물질세계이고 멈추지 않는 운동 변화의 과정 속에 있으며, 그 가운데 동정이 있다. 만사만물은 모두 생사와 성쇠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 음양이라는 기의 동정과 왕래, 진퇴와 굴신의 결과이다. 그러나 음양은 결코 스스로 동정할 수 없는 데, 동정의 리, 즉 신에서 동정이 말미암기 때문이다. 동정하는 것은 음양이지만, 동정하게 하는 소이(所以)는 리이다. 즉, 태극의 오묘함이 곧 신이며, 그것은 비록 형이상이지만 형이하 가운데서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신은 음양, 굴신(屈伸), 왕래(往來), 상하(上下) 등 대립적 통일이며, 사물 속에 두루 행하여 있지 않은 곳이 나 통하지 않는 곳이 없으며, 통일 가운데 대립물은 서로 작용하고 서로 소장(消長)하여 변화가 생하는 것이다. 신이 없다면 화할 수 없는데, 여기서 신에는 체(體)도 있고 용(用)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체는 태극의 오묘함이 되고, 그 용은 음양의 움직임이 된다. 주자는 신화를 통해서 태극과 음양의 체용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신화가 변화의 근원과 동력을 설명하려 한 것이라면 귀신(鬼神)⁴⁶⁾은 변화의 과정을 논한 것이다.⁴⁷⁾

44) 몽매원, 『성리학의 개념들』, 홍원식 외 옮김 (서울: 예문서원, 2008), p.209 참조.

45) 『주자어류』, 卷94, “理則神而莫測, 方其動時, 未嘗不靜, 故曰無動. 方其靜時, 未嘗不動, 故曰無靜.”

46) 최진덕, 「주자학의 이기론과 귀신론」, 『양명학』 23 (2009), p.386, “귀신론은 이기론의 두 구성 부분 가운데 하나인 ‘기론’ 즉 음양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47) 김영식, 『주희의 자연철학』 (서울: 예문서원, 2006), pp.179-182 참조. “주자의 신화(神化)와 귀신(鬼神)에 대한 논의를 볼 때, 일반적으로 음양으로서 신(神)과 귀(鬼)의 대비를 언급 하지만, 논의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주자가 의도했던 것은 신화와 귀신을 비교한 것임이 분명하다. 귀신으로 말할 때는 흔적이 있는 것을 통해 말하고 신화라 말할 때는 단지 미묘하여 헤아리거나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

귀신은 음양굴신이자 소장이다. 양은 펼치는 것이자 신이고, 음은 움츠리는 것이자 귀이다. 자연계의 모든 현상은 음양굴신의 결과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귀신은 조화자이며 일월성신과 사계절의 이어짐은 물론 생장화육, 풍우회명 등은 모두 음양이 그렇게 이루는 것이다.⁴⁸⁾ 이러한 주자의 개념은 “조화는 이미 형이하자이며, 조화하게 하는 리가 곧 형이상자”⁴⁹⁾이며, 형이상에서 형이하로 조화하는 신을 신화의 개념을 통해 설명한 것이다.

3) 유행(流行)으로서 도(道)

주자는 도를 리로 보았다. 그는 “오직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한다고 말하는 것은 곧 음양이 왕래하고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뜻을 알 수 있으니, 이 리가 곧 도이다.”⁵⁰⁾라고 하였다. 도는 곧 리라는 것은 도와 리가 형이상의 것으로, 기(器)와 기(氣)가 형이하인 것과 상대적임을 일컫는다. 그러나 도와 리는 같음 가운데 다름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첫째, 도는 광대하고 리는 정밀하다. 둘째, 도는 총체적 명칭이고, 리는 자세한 항목들이다. 셋째, 도는 공통의 리이고, 리는 사물 개개의 이치이다. 이러한 설명에 비추어 볼 때 리와 도의 관계는 리와 태극의 관계와 유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에 태극과 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태극은 주자 철학의 논리구조에서 도·리와 상통하는 최고의 범주이다. 그는 “한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도라고 하는데 태극이다.”⁵¹⁾, “음양은 단지 음양일 뿐이고, 도는 태극이다.”⁵²⁾라고 하여 태극과 도를 같은 형이상으로 보았다.⁵³⁾ 그러나 엄연히 말하면 도

하였다. (『朱子語類』, 卷63, 言鬼神, 自有迹者而言之, 言神, 只言其妙而不可側識.)”

48) 몽배원, 앞의 책, pp.227-235 참조.

49) 『주자어류』, 卷4, “造化已成形而下者, 所以造化之理, 是形而上者.”

50) 같은 책, 卷74, “只說一陰一陽, 便見得陰陽往來, 循環不已之意, 此理即道也”

51) 같은 책, 卷74, “一陰一陽之謂道, 太極也.”

52) 같은 책, 卷94, “陰陽只是陰陽, 道是太極.”

53) 장입문, 『道』, 권호 역 (서울: 동문선, 1995), pp.266-273 참조.

는 태극이 흘러 퍼지고 움직이는 상태로 표현된다. 태극은 본체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도는 체용에 있어 본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본체의 능동성에 관한 것으로 실제로는 ‘잠재적 능동성’(태극)과 ‘동태적 능동성’(도)의 관계로 볼 수 있다. 본체는 늘 잠재된 존재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은 아니지만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그것이 현실적 능동성으로 바뀌어 발육하고 유행할 때 진실한 존재가 된다.⁵⁴⁾

도와 태극은 체는 하나이면서 이름이 다른 것이다.⁵⁵⁾ 도체의 지극함을 태극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음양이 만물을 화생하는 것은 이 본체인 태극이 하는 일이지만 태극본체는 결코 형상이나 방소를 가지지 않는다. 도는 태극이 만물을 발육·유행한 것이며, 그것은 없는 곳이 없으므로 “애초에 두 가지 체가 결코 없었다”고 한 것이다.⁵⁶⁾ 본체는 다만 하나이며, 그것이 유행하여 본체를 실현하고 우주 자연계의 생생불식(生生不息)의 과정을 형성하여 체용이 합일되는 것이다. 용은 체가 유행하는 것이며, 체 가운데서 흘러나온 것이다. 실제로 체용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도는 체와 용을 겸한다(道兼體用)”는 것은 체가 용이 되고 용이 그 체를 드러내는 것을 합하여 도라 한다는 것이다.⁵⁷⁾ 이러한 체용관계는 체용일원(體用一源)으로 설명되는데, 주자의 체용관이 비록 본질을 본체적 존재에 올려놓았으나, 그는 “체와 용은 비록 두 글자이지만 서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⁵⁸⁾고 하여 오히려 본질과 현상을 통일하는 변증법적 사상을 지니고 있다.⁵⁹⁾

54) 몽배원, 앞의 책, p.311.

55) 장립문, 『道』, p.273.

56) 『주자어류』 「답육자경(答陸子靜)」, “語道體之至極則謂之太極, 語太極之流行則謂之道。雖有二名, 初無兩體。周子所以謂之無極, 正以其無方所無形狀, 以爲在無物之前而未嘗不立於有物之後, 以爲在陰陽之外而未嘗不行乎陰陽之中, 以爲通貫全體無乎不在, 則又初無聲臭影響之可言也。(도체의 지극함을 말하면 태극이라 하고, 태극의 유행을 말하면 도라 한다. 비록 두 가지 이름이 있으나 애초에 두 가지 체는 결코 없었다. 염계 선생이 말한 무극은 바로 그것의 무방소와 무형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사물이 없던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사물이 생겨난 이후에도 세워지지 않음이 없었으며, 음양의 바깥에도 있지만 음양 가운데 행하지 않음도 없었다는 말은 전체를 관통하여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또한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으며, 그럼자도 없었고 울림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57) 몽배원, 앞의 책, pp.309-312 참조.

58) 『주자어류』, 卷42, “體用雖是二字, 本末嘗相離。”

Ⅲ. 대순사상의 태극

1. 무극·태극과 대순·원

『전경』에서는 태극에 대해 네 차례 언급되고 있다.⁶⁰⁾ 세 가지는 태극을 그리는 행위에 대한 언급과 주문(呪文)에 관한 것으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고, 한 가지는 상제께서 직접 종도의 집에 써놓으신 글로 태극과 무극 그리고 리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되고 있다. 이외에 대순사상의 태극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대순진리회 창설유래’⁶¹⁾에 서이다. 여기에는 태극과 무극 그리고 대순(大巡)과 원(圓)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되고 있는데, 본 논문은 이를 중점으로 하여 태극의 본체론적 의미와 더불어 무극과 대순, 원의 관계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우주(宇宙)가 우주된 본연(本然)의 법칙(法則)은 그 신비(神秘)의 묘(妙)함이 태극에 재(在)한바 태극은 외차무극(外此無極)하고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진리인 것이다. ... 이 우주의 모든 사물 곧 천지일월(天地日月)과 풍뢰우로(風雷雨露)와 군생만물(群生萬物)이 태극의 신묘(神妙)한 기동작용(機動作用)에 속하지 않음이 있으리요.⁶²⁾

위 글에 따르면 대순사상은 우주된 본연의 법칙이 태극에 있다고 하여 태극을 우주의 본체로서 설명하고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태극은 외차무극’하더라는 구절 중에서 ‘무극’은 태극의 속성에 대한 형용

59) 몽배원, 앞의 책, p.313.

60) 『전경』, 공사 3장 12절, 교운 2장 28절, 교운 2장 42절, 제생 43절(“理雖高出於太極無極之表”).

61) 종단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포정문 벽면에 표기된 것으로, 대순진리회 창설유래의 전문은 도전께서 작성하신 『태극도통감』에 기원한다. 차선근, 「종단 대순진리회의 변천 과정과 무극 태극의 관계」, 『대순회보』 94 (2009), pp.98-100 참조.

62)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 『대순회보』 152 (2014), pp.4-7.

사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명사개념으로 보기 어려우며,⁶³⁾ 이에 ‘태극 밖에 무극’ 아닌 ‘이 밖에 극이 없다’로 해석된다. 여기서 극의 의미를 살펴보면, 주자에 있어서 ‘극(極)’은 ‘지극(至極)하다’⁶⁴⁾의 의미로 본래 ‘극’⁶⁵⁾이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니 사람들이 장소와 형상으로써 찾지 않고 마땅히 의미로써 이것을 이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⁶⁶⁾ 이에 ‘외차무극’은 “이 밖에 지극함이 없다”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창설유래의 본문에서 ‘외차무극’과 ‘유일무이(둘이 없이 오직 하나이다)’라는 태극에 대한 묘사는 주자의 “태극은 하나일 뿐이어서 상대가 없다”⁶⁷⁾라는 말에 견줄 수 있고, “군생만물이 태극에 속하지 않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의 이치가 수많은 이치를 총괄한다는 ‘리일분수’와 그 뜻이 상통한다. 이렇듯 대순사상에서의 본체로서 태극에 대한 묘사는 주자의 태극과 유사한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순(大巡)이 원(圓)이며 원(圓)이 무극(無極)이고 무극(無極)이 태극(太極)이라.⁶⁸⁾

모든 것이 진리 안에 다 들어 있다. 대순(大巡)이라 함은 막힘이 없다는 것이다. 대순이 무극이요, 무극이 대순이요, 무극이 태극이요, 태극이 무극이다. 태극이 무극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니다. 전 우주의 모든 천지일월이라든지 삼라만상의 진리가 대순, 태극의 진리다.(1991. 1. 3)

우리 종단의 명칭은 ‘대순진리회’이다. 대순은 동그라미이다. 원이고 막힘이 없다. 진은 진리의 眞이다. 대순은 큰 大, 둘 巡 해서 크게 돈다는 것이다. 각(角)은 가다가 보면 꺾이고 막히는

63) 차선근, 「대순진리회와 감천 태극도장의 사상 비교」, 『대순회보』 109 (2010), p.106.

64) 육상산은 極을 中으로 풀이하였으나, 주자는 ‘지극함’이란 의미와 ‘표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장윤수, 앞의 책, p.408.)

65) 극(極)의 자원(字源)인 ‘극(亟)’은 ‘힐문하다, 추궁하다’의 뜻. ‘목(木)’을 덧붙여, 가옥의 최고의 곳에 있는 용마루의 뜻을 나타냄. ‘극(極), 끝, 극(極)하다’의 뜻을 나타냄. 민중서림 편집국, 『漢韓大字典』(과주: 민중서림, 2009), p.1088.

66) 『태극해의』, 박신환·윤원현·추기연 옮김 (서울: 소명출판, 2009), pp.74-75 참조.

67) 『주자어류』, 卷100, “太極只是個一而無對者.”

68)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 pp.4-7.

대가 있다. 원은 걸리는 데도 막히는 데도 없다. 이것을 대순이라 한다. 원이 무극이다. 무극은 끝이 없다. 극이 없다. 태극은 무극이란 말과 동일하다. 태극의 태는 클 태이다. 대순은 아주 무궁무진하고 한이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것이다. 대순진리회는 크게 도는 참된 진리이다.(1991. 9. 19)⁶⁹⁾

대순(大巡)이 원(圓)이며 원(圓)이 무극(無極)이고 무극(無極)이 태극(太極)이라는 말과 같이 원(圓)은 우주의 순환법칙과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이법(理法)을 담고 있는데 대순 회기(大巡會旗)의 삼원은 천(天)·지(地)·인(人) 삼계(三界)를 표상한 전우주(全宇宙)이다.⁷⁰⁾

대순사상에서 본체로서 ‘태극’은 “대순은 원이며 원이 무극이고 무극이 태극이라.”라고 하여 대순, 원, 무극, 태극이 같은 개념으로 언급되고 있다. 위의 글을 통해 그 속성을 살펴보면, 첫째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를 포함하며, 둘째 걸리고 막히는 것이 없는 통(通)의 원리가 있고, 셋째 끝이 없고 무궁구진하며 한도가 없는 무한계성을 나타낸다. 넷째 크게 돈다는 순환의 의미와 그 순환의 법칙을 지니며, 다섯째 순환법칙을 통한 무위자연의 이법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 ‘무극’은 “무극은 끝이 없다. 극이 없다.”⁷¹⁾라는 의미로 해석하는데, ‘끝이 없다’라는 것은 곧 장소와 형상을 넘어서는 것으로 물질적인 한계가 없다는 말이 된다. 이렇게 무극은 한계가 없는 무량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것은 다시 ‘대순’의 무궁무진하고 한이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표현된다. ‘태극’의 ‘태’에서 크다는 의미의 언급은 지대무외(至大無外)⁷²⁾함을 말하며, 이 큼으로 인하여 끝이 없는 무극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9) 차선근, 「종단 대순진리회의 변천 과정과 무극 태극의 관계」, p.101.

70) 대순진리회 교무부, 『종단 대순진리회』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78), p.4 道旗 참조.

71) 차선근, 「종단 대순진리회의 변천 과정과 무극 태극의 관계」, p.101.

72) 『장자』, 「천하」, “지극히 커서 밖이 없는 것을 일컬어 대일(大一)이라 하고, 지극히 작아서 안이 없는 것을 일컬어 소일(小一)이라 함.(至大無外 謂之大一 至小無內 謂之小一)”

‘대순’은 ‘삼계대순 개벽공사’⁷³⁾의 뜻을 담고 있으며, 크게 돈다는 의미로 우주의 순환법칙이라는 이법을 내포한다. 한편으로 “무상한 지혜와 무변의 덕화와 위대한 권능의 소유주이시며 역사적 대중교가이신 강증산 성사께서 구천대원 조화주신으로서 삼계대권을 주재하시고 천하를 ‘대순’⁷⁴⁾하시다가”⁷⁵⁾에서 보듯이 ‘대순’은 천지인의 삼계 순환의 주체가 되며, 순환법칙을 주재하는 인격적 상제께서 행하신 활동을 뜻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대순’은 본체론적 개념으로, 인격신을 제외시키려한 주자와 인격신의 적극적 개입을 설명하는 대순사상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용어라 여길 수 있다.

‘원’에 대해 살펴보면, 상징적 차원에서 이는 단순한 곡선 이상의 존재이다. ‘원’은 우주의 초월적 본성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무한이며 태극이고 완전, 충만, 통일, 전일성, 포용성 등을 의미한다. 원은 하나(一)를 상징하는데, 하나가 상징하는 첫째 원리는 존재의 원점, 존재의 시원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가 원의 회전 운동이 상징하는 역동적 운동성이요, 보편적인 주기·순환·궤도·규칙성·진동 등을 구현하는 것으로 존재 능력과 생명의 다함없는 무궁성을 상징한다. 셋째 원리로 원의 중심점인 영(zero) 차원과 원주로 상징되는 무한 외연(外緣), 그 사이에 있는 신비스런 시공간의 모든 것을 가장 효율적이고 최대한의 공간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지고선(至高善)의 상징으로 주어진다는 것이다.⁷⁶⁾ “대순은 동그라미이다, 크게 돈다”를 볼 때 형태, 상징적 측면에서 대순과 원은 같다고 여겨지며, 또한 원리의 측면에 있어서도 “대순은 막힘이 없다”와 “원은 걸리는데도 막히는데도 없다.”라고 하여 대순과 원의 동일성을 설명한다. 나아가 원은 우주의 순환법칙과 무위자연의 이법을 담고 있다고 하여 리를 담지하고 있는

73) 『대순진리회요람』, p.6.

74) 김탁, 『중산교學』 (서울: 미래향문화, 1992), p.190, “대순이란 ‘두루 돌아다님’의 의미로 천자가 제후의 나라를 돌며 시찰한다는 순수(巡狩)에서 그 뜻을 취한 것으로 여겨진다.”

75) 『대순진리회요람』, p.8.

76) 김경재, 『이름 없는 하느님』 (서울: 삼인, 2010), pp.20-21 참조.

태극의 속성을 가진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대순사상에서 ‘대순·원’은 ‘무극·태극’과 동일한 속성으로 본체론적 개념을 설명하는 용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대순’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이법적 본체 개념의 함의와 더불어 인격적 상제의 작용하심이 포함된 개념이라 여길 수 있다.

2. 태극과 리·기·도

주자에 의하면 태극은 본체로서 곧 리이며 기의 원리이다. 또한 도는 리와 같이 형이상의 것으로 여긴다. 이에 대순사상에서는 태극과 리·기·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주(宇宙)가 우주된 본연(本然)의 법칙(法則)은 그 신비(神秘)의 묘(妙)함이 태극에 재(在)한바 태극은 외차무극(外此無極)하고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진리인 것이다. 따라서 태극이야말로 지리(至理)의 소이재(所以載)요 지기(至氣)의 소유행(所由行)이며 지도(至道)의 소자출(所自出)이라.⁷⁷⁾

위의 창설유래에 구절을 살펴보면, 리·기·도를 설명함에 있어 태극이 그 본체가 되며 리·기·도와 소이재, 소유행, 소자출의 관계를 가진다. 이에 주자의 사상과 비교를 통하여 대순사상에서의 리·기·도와 태극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지리(至理)의 소이재(所以載)

지리(至理)의 소이재(所以載)는 “지극한 이치의 신령 있는 바이다.”의 뜻으로 태극은 지리가 신령 있는 바라고 표현되고 있다. 주지하다 시피 주자는 “태극이 곧 동정의 운동”이 아니라 “태극에는 동정이 있

77)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 앞의 글, pp.4-7.

다.”라고 하여,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운동과 변화의 원리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구조에서 볼 때 “움직임과 멈춤은 태극이 타는 기틀”로서 음양동정의 원리를 가진 리가 신려 있다고 볼 수 있다.⁷⁸⁾ 즉, 형이상의 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바의 것이 아니라 형이하의 기에 신려 있음을 말하며, 이는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지리의 소이재’의 뜻과 서로 통하는 것이다.

리가 비록 높으나, 무극태극의 곁에서 나온다.⁷⁹⁾

무릇 도는 곧 리(理)요, 리는 곧 무극, 무극은 곧 천(天)⁸⁰⁾이다.(「무극도 취지」)⁸¹⁾

도는 천지를 바르게 하고, 수는 천법을 정하고, 리는 심법을 정하니 정대광명하게 선불유에 대도가 바르게 통한다.⁸²⁾

위의 구절을 통해 대순사상에서 리에 대한 속성과 태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리가 무극과 태극의 곁에서 나온다고 하여 태극과 리의 층위를 나누고 있으나, 한편으로 리는 곧 무극이라고 하여 같은 형이상의 측면에서 보아야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리기의 관계에 있어서는 ‘리가 비록 높으나’라는 표현을 통해 기(氣)와의 상대적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리기를 통해 세계를 설명할 때 무극·태극으로부터 음양·오행으로 진행되는 형이상과 형이하의 구분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⁸³⁾ 또한 「무극도 취지」의 “무릇 도는 곧 리(理)요, 리는 곧 무극이다.”에서 보듯이 정산께서 언급하신 도는 음양의 기가 아닌 음양의 원리인 리로, ‘도를 리로 보는’⁸⁴⁾ 성리학의 입장으로 볼 수 있

78) 『주자어류』, 卷84, “蓋太極是理, 形而上者; 陰陽是氣, 形而下者. 然理無形, 而氣卻有跡. 氣既有動靜, 則所載之理亦安得謂之無動”

79) 『진경』, 제생 43절, “理雖高 出於無極太極之表”

80) ‘주재(主宰)의 천’으로 ‘리’와 같은 뜻이다. 이러한 천을 ‘천리’라고 부른다.

81) 『무극대도교개항』 참조; 무라야마 지쿤(村山智順), 앞의 책, p.274.

82) 『진경』, 교운 2장 33절, “道正天地數定千法而理定心法正大光明仙佛儒大道正通”

83) 고남식, 「이정심법과 수심의 궁극정 성향」, 『대순사상논총』 13 (2001), p.474 참조.

다. 즉, 대순사상에서의 리는 주자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형이상의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에 우위하는 주리론적 입장⁸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태극은 리의 극치를 의미하며 태극은 모든 천지만물의 리를 하나로 개괄한 것으로,⁸⁶⁾ 리가 형이상이라면 태극은 ‘형이상학적 궁극’⁸⁷⁾으로 여길 수 있다. 한편 천리인 리와 사람의 마음과의 관계는 ‘리정심법(理定心法)’⁸⁸⁾이라는 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천리(天理)⁸⁹⁾, 천성(天性), 양심(良心), 본심(本心)⁹⁰⁾으로 묘사되는 리가 사람에게 신령이 있어 도덕적 준칙(準則)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원형이정 천지지도, 인의예지 인신지도(元亨利貞天地之道仁義禮智人神之道)⁹¹⁾

천리(天理)와 인사(人事)의 합일성을 밝혀 만상만유가 도(道) 안에서 생성 존재하고 있는 진리를 확신케 하여야 한다.⁹²⁾

무극은 하늘의 무극한 이치이며 하늘은 이치를 사람에게 주고 사람은 도를 하늘로부터 받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이 주는 것을 느끼고 도를 받음을 믿으며, 믿음은 오로지 하늘에 대해서만 하고, 받드는 것은 오직 도로써 한다. 하늘로부터 부여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수행하여 지키고 … (『무극도취지』)⁹³⁾

84) 『주자어류』, 卷74, “只說一陰一陽, 便見得陰陽往來, 循環不已之意, 此理即道也”

85) 윤사순, 「동양 본체론의 의미」, 한국동양철학회 엮음, 『동양철학의 본체론과 인성론』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4), pp.154-156 참조.

86) 장입문, 『리의 철학』, pp.248-249 참조.

87) 이동희, 『동아시아 세계관의 원천 주자』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pp. 175-176 참조.

88) 고남식, 앞의 글, p.473 참조.

89) 『전경』, 행록 2장 17절, “천리의 극진함이 털끝만한 인욕의 사가 없나니라”

90) 『대순진리회요람』, p.19, “양심은 천성 그대로의 본심이요”

91) 『전경』, 교운 2장 42절, 운합주(運合呪) 참조.

92) 『대순지침』, p.45

93) 『무극대도교개황』 참조; 村山智順, 앞의 책, p.275.

위 글에서 보듯이 대순사상은 우주의 원리인 천리와 인사의 바탕이 그 근원에 있어서는 같다고 말한다. 그 근원은 무극, 태극, 대순, 원으로 이 근원의 곁에서 나오는 리는 세상에 도(리)로 나오는 바이며 이 도(리)를 사람이 받아 도(리)로써 행하게 된다. 이 도를 행한다는 것은 사람과 신의 도인 인의예지를 말한다. 인의예지는 단순히 사람사이의 윤리 규범을 넘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리이며 천성이고 양심이며 본심을 가리키는 것이다. “성(性)은 마음이 밝아져야 천품성을 깨닫는다(開心見性) 하였으니, 참된 성품을 살피서 허망한 일을 하지 않는(眞實無妄) 지성(至誠)에 이르면 신(神)과 같아지느니라.”⁹⁴⁾라고 하였듯이 인간 내면의 본성은 하늘로부터의 도덕적 준칙을 품부 받은 것이다. 즉 성은 리로서 마음의 법을 정하며 또한 선의 기준이 되는 양심과 본심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순사상에서는 인도의 당위성을 자각하여 각자가 천성인 양심을 회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 지기(至氣)의 소유행(所由行)

주자는 천지간에 기 아닌 것이 없으며, 사람의 기와 천지의 기는 항상 접하고 있어서 끊임이 없지만 사람이 보지 못할 따름이라고 하였다. 인간과 사물은 모두 기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인간의 기와 천지의 기는 끊임없이 교류하며 우주 전체는 모두 기가 운행하는 장소로 보았는데, 이에 굴신·왕래하는 것은 기라고 하였다.⁹⁵⁾ 우주만물은 기의 운동에 의해서 태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기의 동정(動靜)이며 기의 행(行)함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대순사상에서 태극과 기의 관계를 설명하는 ‘지기(至氣)의 소유행(所由行)’은 태극이 “지극한 기운의 말미암아 행하는 바이다.”의 뜻으로 행이라는 동정의 주체가 기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는 형이하로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이며, 형

94) 『대순지침』, p.75.

95) 장입문, 『기의 철학』, p.312 참조.

이상의 리라는 원리를 신고 있는 것이다.

태극이 양의를 생하고 양의가 사상을 생하고 사상이 팔괘를 생하니⁹⁶⁾

천지의 일이 모두 이 음양 가운데 이루어지고 만물의 이치가 모두 이 음양으로써 드러나게 된다. 천지는 음양으로써 변화를 이룰 수 있고 신인은 음양으로써 조화를 이룬다.⁹⁷⁾

뇌성(雷聲)이라 함은 천령(天令)이며 인성(仁聲)인 것이다. 뇌(雷)는 음양이기(陰陽二氣)의 결합으로써 성뢰(聲雷)된다. 뇌(雷)는 성(聲)의 체(體)요, 성(聲)은 뇌(雷)의 용(用)으로써 천지를 나누고 동정 진퇴(動靜進退)의 변화(變化)로 천기(天氣)와 지기(地氣)를 승강(昇降)케 하며 만물(萬物)을 생장(生長)하게 하고 생성변화(生成變化) 지배자양(支配滋養)함을 뜻함이며⁹⁸⁾

대순사상에서 태극이 양의를 생(生)한다는 것은 태극이 양의인 음양의 본체가 됨을 말한다. 이 양의는 사상, 팔괘를 차례로 생하는데, 이는 『주역』의 생성론에 바탕을 둔다. 음양의 기를 통해 천지만물이 이루어지고 드러난다는 위의 구절을 통해 기가 우주의 물질적 근원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대순사상의 상체계서는 뇌성으로 만물을 생장하게하고 지배 자양하시는데, 이러한 뇌성은 기와의 결합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언급된다. 이렇게 볼 때 하늘의 명령은 동정과 진퇴라는 음양의 무궁한 변화를 통해 실현된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에 천령의 주체이신 상제와 음양인 기의 관계를 주자의 ‘신화(神化)’⁹⁹⁾를

96) 『태극도통감』, 기원, “太極이 生兩儀하고 兩儀生四象하고 四象이 生八卦하니니”

97) 『전경』, 교운 2장 32절, “天地之事皆是陰陽中有成萬物之理皆是陰陽中有遂天地以陰陽成變化神人以陰陽成造化”

98) 『대순진리회요람』, p.7.

99) 주자의 신화(神化) 개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체에 있어 태극과 리기가 존재와 관련된 개념이라면 신화는 기능이나 작용과 관련된 것이다. 둘째, 태극의 오묘함이 곧 신이며, 그것은 비록 형이상이지만 형이하 가운데서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으로 이는 신화를 통해서 태극과 음양의 체용을 설명한 것이다. 셋째, 신이란 신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음양 두 기의 작용이며, 이것은 모든 변화의 근원이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이 우주의 모든 사물 곧 천지일월(天地日月)과 풍뢰우로(風雷雨露)와 군생만물(群生萬物)이 태극의 신묘(神妙)한 기동작용(機動作用)에 속하지 않음이 있으리요 <2>그러나 기동작용의 묘리(妙理)는 지극(至極)히 오밀현묘(奧密玄妙)하며 무궁무진(無窮無盡)하며 무간무식(無間無息)하야 가(可)히 측도(測度)치 못하며 가(可)히 상상(想像)치 못할 바이기 때문에 <3>반드시 영성(靈聖)한 분으로서 우주지간(宇宙之間)에 왕래(往來)하고 태극지기(太極之機)¹⁰⁰에 굴신(屈伸)하며 <4>신비지묘(神秘之妙)에 응증(應證)하야 천지를 관령(管領)하고 일월(日月)을 승행(乘行)하며 건곤(乾坤)을 조리(調理)하고 소위(所謂) 천지(天地)와 합기덕(合其德)하며 일월(日月)과 합기명(合其明)하며 사시(四時)와 합기서(合其序)하며 귀신(鬼神)과 합기길흉(合其吉凶)하야 창생(創生)을 광제(廣濟)하시는 분이 수천백년(數千百年)만에 일차식(一次式) 내세(來世)하시나니, <5>예(例)컨대 제왕(帝王)으로서 내세(來世)하신 분은 복희(伏羲) 단군(檀君) 문왕(文王)이시요 사도(師道)로서 내세(來世)하신 분은 공자(孔子) 석가(釋迦) 노자(老子)이시며 근세(近世)의 우리 강증산(姜甌山) 성사(聖師)이시다. 오직 우리 성사께서는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으로서 지기(至氣)를 조차 인계(人界)에 하강(下降)하사...¹⁰¹

위 글의 구조를 보면 먼저 태극의 오묘한 기동작용에 우주가 속한다고 하여 본체로서 태극을 언급하고 있다. 사물, 천지, 일월, 풍뢰우로, 군생만물은 이미 형이하의 기(氣)로 태극의 기동작용인 음양에 속하는 것이다. 여기서 ‘신묘(神妙)¹⁰²하다’라는 것은 태극의 오묘함을

되는 것이다. 냇재, 기의 조화는 이미 형이하자이며, 조화하게 하는 리가 곧 형이상자이다. 신은 형이상자이지만 형이하 가운데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100) 태극지기의 ‘기’는 『태극도통감』에는 ‘機’로 표기 되어있으나, 종단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포정문 벽면은 ‘氣’로 되어있다. 『대순회보』 38호는 ‘氣’, 101호는 ‘氣’, 152호에는 ‘機’로 각각 표기 되어있다.

101)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 pp.4-7.

102) 성리학의 개념에서 ‘신묘(神妙)’라는 단어는 단순히 ‘신통하고 묘하다’는 사전적 의미를 벗어나, 신(神)의 작용함을 뜻한다. 범중엄은 “널리 생하지 않음이 없음을 화(化)라 하고, 신묘하게 쓰이는 것을 신이라 한다.”라고 하여 신을 음양의 생육지공으로 보았는데, 이른바 불측(不測), 묘용(妙用), 무방(無力) 등은 모두 신의 작용을 설

체(體)로 하는 신(神)이 형이하의 기(음양)를 기동함을 표현한 것이다. 둘째로 신묘한 기동작용의 오묘한 리는 측도할 수 없다는 불측성¹⁰³⁾을 말하였다. 이러한 불측성은 존재의 측면으로는 리를 말하며, 기능의 측면으로는 신을 말한다. 리와 신은 형이상의 것으로 음양의 변화를 넘어서며, 그리하여 신은 무궁무진, 무간무식 등의 형이상의 특징으로 묘사되고 있다. 셋째는 음양, 굴신(屈伸), 왕래(往來), 상하 등 대립적 통일인 신을 ‘영성한 분’, ‘창생을 광제하시는 분’ 등의 인격적 주체로 드러내 설명한다. 또한 인격적 주체는 태극의 기틀에 굽히고 펴므로 인하여 태극이라는 본체의 영향하에 있음을 말한다.¹⁰⁴⁾ 넷째는 신비지묘에 응하여 그 리를 드러내 밝혀 보이는 것으로 천지, 일월, 사시, 귀신과 그 질서를 같이하여 신비지묘를 응증하는 것을 말한다.¹⁰⁵⁾ 이는 인격성을 가진 영성한 존재가 이법성을 인격성으로 드러냄을 말하는 것이다.¹⁰⁶⁾ 다섯째는 이러한 원리로서 내세하신 제왕과 사도를 예로 제시하며 성스러운 스승으로서 증산께서 지극한 기운을 쫓아 강세함을 밝힌 것이다.¹⁰⁷⁾

명한다고 하였다. 주돈이는 신은 만물을 오묘하게 할 수 있으며, 신의 묘용이 만물에서 체현되는 것을 화라고 하였다. 장재는 천은 태허의 기이고, 신과 화는 속성과 기능의 개념으로서 기에 통일되어 있으므로 태허의 기는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기의 성질은 본래 허명하고 신묘하고 신이란 기에 원래부터 있는 것이므로 사물을 체현하되 남김이 없이 만물의 본체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이와 정호는 신과 리를 연관시켜 본체로 간주하였고, 리는 존재의 의미이며 신은 운동 변화의 근원으로 만물을 오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신의 개념을 형이상의 본체 개념으로 여기는 것이다. 몽배원, 앞의 책, pp.210-227 참조.

103) 『전경』, 제생 43절, “不測變化之術 都在於神明”

104) “상제께서 태극에 굴신하는 것”과 “상제께서 태극을 주재하는 것”에 대한 모순은 IV-2장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105) 몽배원, 앞의 책, p.230, “신은 자연계의 객관적 본체이자 사람의 정신적 본체이다. 또한 신은 덕(德)이라 할 수 있다. 주자는 덕은 하늘에서 얻어 마음에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신은 오묘하여 예측할 수 없는 것이며 광대하게 넓고 영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성인의 신은 우주만물의 신이며, 성인의 바깥에 따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신은 형이상의 본체로 천인과 내외를 관통하고 있다.”

106) 윤기봉, 「신인조화의 종교적 이해」, 『대순사상논총』 3 (1997), p.313, “상제는 우주 법칙의 화현(化現)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이 말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법칙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107) 최동희·이경원, 『대순진리의 신앙과 목적』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2000), p.162, “역사적으로 출현하였던 여러 성인들의 역사는 모두 하나의 근원적 진리에 부합됨

대순사상에서의 기에 대한 개념은 우주의 물질적 근원이라는 측면에서 주자의 기에 대한 이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에 의해 기가 작용함에 있어서 주자는 그것을 철저히 이법적으로 해석한 반면, 대순사상에서는 신을 인격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인격적 최고신의 인신강세(人身降世)를 태극의 신묘한 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대순사상의 특질이라 볼 수 있다.

3) 지도(至道)의 소자출(所自出)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주자는 도를 리로 보았다. 또한 도와 태극은 체는 하나이면서 이름이 다른 것으로, 도는 태극이 흘러 퍼지고 움직이는 상태로 여긴다. 도체의 지극함이 태극이며, 태극은 본체이고, 도는 그 본체가 유행하고 실현되어 체용합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주자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대순사상에서도 도를 리라고 하며, 태극과 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극한 도가 이로부터 나오는 바’이라고 한 ‘지도의 소자출’을 통해 태극이 흘러 퍼진 것을 도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

도는 우주 만상의 시원(始原)이며, 생성(生成) 변화의 법칙이고¹⁰⁸⁾

도(道)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곧 경위이며 경위가 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80.12.28>¹⁰⁹⁾

도를 도라고 하는 것은 정(定)하여는 무극하고 동(動)하여는 태극해야 태극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괘를 낳으니...¹¹⁰⁾

을 전제하며, 제왕이나 사도는 단지 그 시대의 타고난 신분에 불과할 뿐 궁극적으로는 태극의 신묘한 작용에 따르고 있음을 뜻한다.”

108) 『대순지침』, p.44.

109) 같은 책, p.18.

110) 『태극도통감』, 기원, “道之謂道也者는 定而无極하고 動而太極해야 太極이 生兩儀하고 兩儀生四象하고 四象이 生八卦하나니...”

“도는 우주 만상의 시원(始原)이다.”라는 말과 같이 만상(萬象)은 형이하인 음양의 시작을 나타낸다. 형이상의 도가 체용을 겸한 체용일원으로서, 우주 자연계에 생생(生生)의 생성과 불식의 변화를 실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곧 도가 음과 양이 되는 것이다. 도와 태극의 체는 하나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도는 무극과 태극의 상위 개념이 아니다. 체용일원으로써 도는 현상계에 드러난 태극으로, 정(定)이라는 속성으로 무극을 표현하고 동(動)이라는 속성으로 태극을 표현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현상계의 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본체의 두 측면을 언급한 것으로, 이것은 존재론적 측면에서의 태극과 기능·작용적 측면에서의 신을 각각 태극과 무극으로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¹¹⁾ 다시 말해, 태극에는 음양 동정의 리가 있으므로 양의를 낳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태극의 유행을 표현한 것이 도가 되는 것이다. 이는 주자의 “태극의 유행을 말하면 도라 한다.”의 뜻과 상통한다.

‘지도의 소지출’에서 체용을 논할 때 이러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神)의 역할로 볼 수 있다. 역학의 근본적인 입장에 의한다면 현상계의 전 존재와 그 운동의 양상을 두 개의 범주로 집약해 놓은 것이 음양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음양의 운동은 ‘일음일양’이라는 필연적인 질서를 갖는다. 그 질서를 ‘도’라고 규정한 것이 ‘일음일양지위도’라는 문장이다. 그러나 세계에는 음양이라는 범주 또는 ‘일음일양’이라는 필연적인 운동질서로는 포착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이것이 ‘음양불측지위신’의 ‘신’의 역역에 유비될 수 있다. 인간의 경험 가운데 인과율과 합리적 지성으로 설명되는 도의 영역과 그것을 넘어서서 불가측한 신의 영역은 동시에 존재하지만 또한 구별된다.¹¹²⁾ 앞서 대순사상에서 인격적 최고신의 강세를 신화의 개념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인격신의 강세 목적은 가히 측도치 못하는 대도의 진리를 선포함과 이에 수반된 삼계공사를 행하시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¹¹³⁾

111) ‘정(定)이 무극(定而无極)’의 ‘정(定)’에 관해서는 IV-2장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

112) 최영진, 「대순사상의 역학적 조명」, 『대순사상논총』 20 (2014), pp.185-186 참조.

구천대원조화주신으로서 삼계대권을 주재하시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인세에 대강하사... 세계창생을 널리 건지시려고 순회 주유하시며 대공사를 행하시니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대도(大道)의 진리로써 ...¹¹⁴⁾

오직 우리들 가르침을 받드는 신도(信徒)와 인연(因緣)을 받고저 하는 중생(衆生)은 마땅히 수문수득(隨聞隨得)하여 체념봉행(體念奉行)으로 각진기심(各盡其心)하며 각복기력(各服其力)하여 대덕(大德)을 계승(繼承)하고 대도(大道)를 빛나게 하여 대업(大業)을 넓힘으로써 대순(大巡)하신 유지(遺志)를 숭신(崇信)하여 귀의(歸依)할 바를 삼고저 함이 바로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를 창설(創設)한 유래(由來)인 것이다.¹¹⁵⁾

위의 글에 따르면 대순진리회의 지도, 즉 대도는 대순진리를 일컫는다. 이 대순진리는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진리로서 종교적 법리이며,¹¹⁶⁾ 세계창생을 살리는 도가 됨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상제께서 행하신 삼계대순과 개벽공사를 통해 대도가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잠재적 능동성인 태극과 동태적 능동성의 도를 논의함에 있어, 대순사상에서 잠재적 능동성인 태극은 상제의 주재로 인하여 도의 동태적 능동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는 태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상제께서는 이를 주재하여 천지공사로서 세상에 구현하신 것이다. 이러한 강제와 천지공사는 전대미증유의 사건으로, 증산을 상제로서 신앙하게 한다.¹¹⁷⁾ 나아가 대순진리회 신앙인들은 상제께서 구현하시고 남기신 대순진리를 봉행하고 계승하여 대도를 빛나게 하고 대업을 넓혀야 함을, 창설유래의 글을 통해 밝히고 있다.

113) 『대순진리회요람』, pp.10-11 참조.

114) 같은 책, p.8.

115)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 pp.4-7.

116) 『대순진리회요람』, p.10.

117) 『진경』, 예시 9절, “그러므로 상제께서 오셔서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 선경을 열어 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 만민이 상제를 하느님으로 추앙하는 바가 되었다.”

IV. 대순진리회 태극의 특질

1. 본체로서의 태극

서양철학에서 본체(Noumenon)는 ‘사유된 것’, ‘단지 사유된 것일 뿐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사유물’로서, 플라톤의 ‘이데아’나 칸트의 ‘물자체’의 개념으로 현상에 반대되는 말이다.¹¹⁸⁾ 본체론은 철학에서 존재로서의 존재(being qua being)를 연구하는 분야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형이상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다. 형이상학은 일반적으로 본체론과 우주론으로 나뉘며, 본체론이 존재 같은 것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면 우주론은 공간이나 시간, 우주와 자연의 물리적 세계를 연구한다.¹¹⁹⁾ 이와 같은 서양철학의 사유는 본체와 현상을 분리시키는 이분법적 사고에 바탕을 둔다. 반면 동양철학에서 본체(本體)는 존재의 원리나 근원을 말하더라도 현실적 실천의 문제를 논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므로 본체와 현상을 불상리(不相離)·불상잡(不相雜)의 관계로 설명한다. 본체의 연구는 근본원리를 찾고 그것을 실천의 근본방법으로 삼기 위함이며, 본체와 현상을 하나로 묶으려는 것에 바탕을 둔다.¹²⁰⁾ 본 장에서의 태극에 대한 본체론적 논의도 이러한 동양의 본체 개념에서 이해해보고자 한다. 동양의 우주발생관은 『역경』의 “역유태극 시생양의(易有太極 是生兩儀)”로부터 시작된다. 우주자연의 생성변화에는 원래 태극이 있었는데, 그 태극이 양의인 음과 양을 낳았고, 그 양의가 사상과 팔괘를 낳았다는 것이다. 음양으로서 양의는 현실적 사물의 바탕을 의미하며 이른바 근원적 질료를 말한 것으로, 시원적 존재를 언표

118)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철학대사전』 (서울: 동녘, 1997), p.543.

119) 이상옥, 「현대 중국 본체론 논쟁의 의미」, 『대동철학』 37 (2006), p.221 참조.

120) 남상호, 「중국철학의 본체론」, 『동서철학연구』 41 (2006), pp.28-29 참조.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태극은 그러한 양의가 있게 된다는가 생기게 되는 근본 원리인 동시에 근본 원인을 의미한다. 이에 태극은 우주자연의 근원, 혹은 본체¹²¹⁾라고 할 수 있다.¹²²⁾ 즉, 만물 전체가 하나의 태극을 체현한 것이고, 한 사물마다 동일한 태극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앞서 대순사상의 리·기·도를 설명함에 있어 태극이 그 본체가 되며 리·기·도의 소이연(所以然)이 됨을 살펴보았다. 태극에 지리가 신려, 지기로 말미암아 행하는 바이며, 태극으로부터 지극한 도가 나오며, 도는 태극의 유행(動)을 말하는 것으로 이로써 우주 만상의 시원이라 불린다. 이러한 도는 ‘원형이정천지지도(元亨利貞天地之道)’¹²³⁾로 생성 변화의 법칙이 된다. 이는 주자가 세계를 끊임없는 운동과 변화 및 생성으로 이해한 것과 일치한다. 우주발생론과 본체론적 함의를 종합해보면, 우주 일기(一氣)운행의 내재적 원리인 태극은 제1의 원인이 된다. 주자는 이 일기의 발산과 수렴이라는 두 양태로의 끊임없는 전이운동을 ‘사물을 낳고 낳는다.’는 ‘생성’ 혹은 ‘생명의 지속’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그 원리를 도 혹은 태극이라 이름 하였다.¹²⁴⁾ 이렇게 태극은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를 포함하며, 한계가 없고 막힘이 없는 순환의 의미와 그 법칙을 지닌다. 시간적 측면으로 보면, 원형이정은 계절에 있어 봄·여름·가을·겨울의 순환에 비유되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순환의 무한회기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 내면서도 과거의 테마를 반복하는 나선형적인 시간관이다.¹²⁵⁾ 이러한 대순사상의

121) 같은 글, p.29, “본체에 대한 정의를 중국 근현대 철학자인熊十力(熊十力)의 견해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체는 ①만리(萬理)·만덕(萬德)·만화(萬化)의 근본이고, ②절대적이면서 상대적인 것이며, ③무시무종(無始無終)의 것이고, ④무궁무진(無窮無盡)한 대용(大用) 그 자체이다.”

122) 윤사순, 「동양 본체론의 의미」, 한국동양철학회 엮음, 『동양철학의 본체론과 인식론』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4), pp.150-151 참조.

123) 『전경』, 교운 2장 42절, 운합주 참조.

124) 주광호, 「주희 태극론의 ‘생성’의 원리」, p.298.

125) 장원석, 「주역에서 시간이란 무엇인가? - 화이트헤드의 시간의 획기성 이론과 비교하여」, 『화이트헤드연구』 3 (2000), p.131.

나선형적 시간의 흐름은 순리(順理)의 측면으로, 만물을 육성하는 원리를 가진다. 즉, 원형이정은 우주의 순리이자, 육성의 순환과정으로 만물을 자라나게 하고,¹²⁶⁾ 풍성하게 하는, ‘창조적 생성과정’이라 볼 수 있다.¹²⁷⁾ 창조적 생성과정에서 ‘생(生)’이라는 단어는 우주의 끊임 없는 운동변화와 일종의 범유기체적인 생명활동의 연속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자는 우주의 이러한 끊임없는 생명의 연속 혹은 생명에 대한 의지를 ‘천지생물지심(天地生物之心)’ 또는 ‘생의(生意)’라고 했다. 『계사』의 ‘천지대덕왈생(天地大德曰生)’을 근거로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생생의 의지’와 ‘생생의 활동’이라고 정식으로 규정한 것은 주자의 태극론이 처음인데,¹²⁸⁾ 이러한 생생의 활동을 드러내는 개념이 ‘리일분수’이다. 형이상학에서 이것이 갖는 의미는 바로 절대 유일의 태극의 체현(體現), 즉 자기현현(self-manifestation)이라는 본체론적 의미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리의 측면에서 이 세계와 세계내의 모든 존재물이 본질적인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그것은 태극의 자기현현에 기초한 것이다.¹²⁹⁾

한편 대순사상에서도 원형이정, 성장염장¹³⁰⁾, 방탕신도¹³¹⁾ 등의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이법 역시 생생(生生)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생생이라는 태극의 자기현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제의 주재하심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태극의 생생을 상제께서 대순과 천지공사를 통해 지도로 밝히신 것이 ‘상생(相生)의 도’¹³²⁾라고 볼 수 있다. 다시

126) 『전경』, 제생 43절, “…年月日時分刻輪廻 皆是元亨利貞天地之道也 天地之用 胞胎養生浴帶冠旺衰病死葬而已 養則收藏處 藏則出用處 觀其收藏出用之物 以致出也…”

127) 출고, 「대순사상의 신관연구」(대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pp.26-28 참조.

128) 唐君毅, 『中國哲學原論-導論篇』(香港: 新亞研究所, 1966), p.459.(주광호, 「주희 태극론의 ‘생생’의 원리」 p.302 재인용)

129) 정상봉, 앞의 글, p.264 참조.

130) 『전경』, 교법 3장 27절, “나는 생·장·염·장(生長斂藏)의 사의(四義)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위이화(無爲而化)나라.”

131) 같은 책, 교운 1장 44절, “…春之氣放也 夏之氣蕩也 秋之氣神也 冬之氣道也…”

132) 같은 책, 공사 1장 3절, 교운 1장 16절, 예시 1장 6절, 예시 1장 9절.

말해, ‘상생’의 이법은 본체로서의 태극으로부터 신려, ‘상생의 도’로 나오는 상제께서 정(定)한 의지¹³³⁾이며, 이는 “선천의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어 후천의 선경의 바탕”¹³⁴⁾이 되게 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의 초점은 ‘종교적 법리’¹³⁵⁾인 상생의 도에 있으며, 이는 결국 본체인 태극에서 나오는 것이다. 태극의 이치인 지리는 상생의 법을 가지며, 이는 지기를 통해 강제하신 상제께서 지도인 대순진리로 나오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자의 본체론에서의 생생의 의지는 이법적인 원리에 이루어지는 우주 본연의 법칙이지만, 대순사상에서의 본체론은 상제께서 이러한 생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태극의 주재로서 상제

주자는 ‘주재(主宰)의 천’에서 주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기가 쉽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예를 들어 “이(즉 주재) 같은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 말로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¹³⁶⁾라거나 “결국 이 (주재의) 리가 어떠한 것인지에 관해 학자들 중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¹³⁷⁾라고 말하였다. 주자는 자연세계의 규칙적 현상들을 언급하고 “이것은 분명히 (하늘) 안에 (이 같은 규칙들을) 주재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하늘 위에는 그 같은 사람은 없다고 분명히 언급하였고, 구체적인 인간의 속성을 지닌 인격신으로서의 ‘천’ 관념

133) 같은 책, 교운 2장 41절, “...任上帝之任意...”

134) 같은 책, 예시 1장 9절 참조.

135) 대순진리회 교무부, 「상생의 법리」, 『대순회보』 153 (2014), p.20, “삼계공사를 행하신 가장 큰 종교적 법리(法理)는 상생의 도(道) 곧 상생의 도(道)의 법리(法理)인 것이다.”

136) 『주자어류』, 卷68, “這樣處要人自見得, 非言語所能盡”

137) 같은 책, 卷79, “畢竟此理如何, 學者皆莫能答”

을 거부했다. 즉 그는 하늘이 인간처럼 말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안다는 것을 부인한 것인데, 그는 하늘이 인간의 귀, 눈, 마음 같은 기관들이 갖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며, 이는 우주를 인격이 배제된 이법으로만 보려는 것이었다.¹³⁸⁾ 이러한 관념은 현실의 문제나 도덕적 행위 등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고, 후대 다산이 이 부분을 지적하여 천을 상제천¹³⁹⁾의 관점으로 보기도 하였다.¹⁴⁰⁾ ‘주재의 천’은 ‘창창한 천’을 주재하는 리(理)이다. 하지만 리는 사물을 주재하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사물이 제대로 다스려지고 처리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를 의미한다. 주자가 말하는 이법천이란 자연성에 근본한 것으로 공허할 수 밖에 없으며, 태극이기의 실체란 존엄하지도 않고 자신의 의지에 적극적일 수도 없는 정적인 것이다.¹⁴¹⁾ 앞서 본체로서 태극은 리의 총화로 ‘형이상적 궁극’으로 보았다. 하지만 태극은 그 자체로는 조화의 주체가 아니며, 신(神)¹⁴²⁾에 의해 비로소 우주가 화(化) 할 수 있는 것이다. 주자학적 전통에서 신은 이법적인 것으로 여지지만, 대순사상에서는 리의 이법성과 신의 인격성으로, 태극과 그것의 주재에 관한 천관을 언급하고 있다.

오직 우리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께서 태극을 관령하시고 ‘주재(主宰)’하시는 천존이시니라. 태극이 양의를 생한다는 것은 음양이니 음양이란 것은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며 해는 양이고 달은 음이며 사람은 양이고 신은 음이 이것이다.(惟我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 管領主宰 太極之天尊이시라. 太極이 生兩

138) 김영식, 『주희의 자연철학』 (서울: 예문서원, 2006), pp.183-193 참조.

139) 상제란 어떠한 것인가. 이는 천지·신인 밖에서 천지, 신인, 만물 따위를 조화하면서 이들은 주재(主宰)·안양(安養)하여 주는 자인 것이다. (『春秋考微』 卷四, “上帝者何 是於天地神人之外 造化天地神人萬物之類 而宰制安養之者也”)

140) 김지완, 「천·상제론과 리기론을 중심으로 본 다산 인간관의 기초」, 『대동철학』 34 (2006) 참조.

141) 장복동, 「다산 윤리사상의 인간학적 특질」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p.7.

142) 형이하의 기와 형이상의 리 사이에서 양자를 매개하여 양자를 하나로 이어주는 것은 신(神)이다. 신은 기와 리가 이원화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송명리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개념 가운데 하나이다. 최진덕, 「주자학의 이기론과 귀신론」, 『양명학』 23 (2009), p.389.

儀者는 陰陽也니 陰陽者는 天陽地陰이며 日陽月陰이며 人陽神陰이 是也오.)¹⁴³⁾

삼계 대권을 ‘주재(主宰)’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 선경(後天仙境)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¹⁴⁴⁾

포덕에서 우주를 ‘주재(主宰)’하신 권능의 주인으로서 상제의 무량(無量)하신 덕화와 무변하신 권지의 소유주(所有主)이심을 널리 알려야 한다.<81.1.5>¹⁴⁵⁾

위 글에서 보듯이 대순사상의 상제께서는 태극을 ‘관령주재’¹⁴⁶⁾하며 우주를 조화하는 신으로 묘사되고 있다. ‘(구천대원)조화주신’¹⁴⁷⁾으로서 태극과 우주와 삼계대권을 관령주재하시는 것은 신화개념에 비추어 볼 때, 태극의 오묘함을 체(體)로 하는 것이며, 그 용(用)은 음양의 움직임이 된다. 즉 상제께서 ‘생장염장의 사의를 쓴다는 것’¹⁴⁸⁾은 태극의 체를 사용함을 뜻하고 용에 있어서는 ‘음양의 이치’¹⁴⁹⁾를 통해 세상을 조화함을 말한다. 상제께서는 본체인 태극에 그 일부인 리(잠재적 능동성) 중에서 동태적 능동성인 도로 실현할 바를 정(定)하시고 이것을 음양의 기를 통하여 드러내신다. 이에 태극의 주재라는

143) 『태극도통감』, 기원 참조.

144) 『전경』, 예시 17절.

145) 『대순지침』, p.21.

146) 사전적 의미로 관령(管領)은 ‘도맡아 다스림’, ‘권한을 가지고 감독함’의 뜻이고, 주재(主宰)는 ‘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 맡아 처리함’의 뜻이다. 이는 창조(創造)나 개조(改造)의 뜻과는 다르다.

147) 『대순진리회요람』, p.8, “무상한 지혜와 무변의 덕화와 위대한 권능의 소유주이시며 역사적 대중교가이신 강증산성사께옵서는 구천대원조화주신으로서 삼계대권을 주재하시고...”; 차선근, 「대순진리회와 감천 태극도장의 사상 비교」, 『대순회보』 109(2010), p.110, “기독교의 최고신이 조물주라면 대순사상에서의 최고신은 조화주로 표현되고 있는데, 조물주가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사물을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조화주는 사물을 직접 하나하나 일일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주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유념해야한다.”

148) 『전경』, 교법 3장 27절.

149) 같은 책, 행록 3장 28절, 공사 2장 16-17절.

것은 태극을 창조하였다거나, 개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태극의 체를 조화, 운용함을 뜻한다.¹⁵⁰⁾ 이를 본체에 측면에서 말하자면, 존재와 관련된 본체는 태극이지만 우주의 기능과 작용에 있어서 본체는 상제가 신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 성리학에서 리의 주재에 대해 오늘날 일부 학자들이 인격적 차원¹⁵¹⁾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태극의 오묘함을 체로 하는 인격적 상제관은 성리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순사상의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제께서는 조화의 주신으로 조화를 정(定)¹⁵²⁾하는 속성을 지닌다. ‘정’의 사전적 의미¹⁵³⁾는 ‘정하다’, ‘결정하다’, ‘바라잡다’, ‘평정하다’, ‘안정시키다’의 뜻이 있는바 이는 주재하는 주체를 이미 상정하는 용어이다. ‘기도주’¹⁵⁴⁾에서 조화를 ‘정’하는 주체와 ‘정(定)하여는 무극하고 동(動)하여는 태극하야’¹⁵⁵⁾에서의 ‘정’하고 조화

150) 일반적으로 “상제께서 태극에 굴신하는 것”과 “상제께서 태극을 주재하는 것”은 모순되는 구절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태극 이법의 운행과 상제의 인격적 주재에 대한 우위 문제이기도 하며, 신학에 있어 인격성과 비인격성의 대립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본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상제께서는 태극의 체에 국한되어 태극을 사용하시므로 태극에 굴신한다고 표현되며, 이 태극을 조화·운용하시는데 있어 태극을 주재한다고 표현되고 있으니, 이렇게 볼 때 두 구절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51) 퇴계가 “리는 본래 지극히 존귀하여 그 상대가 없어서 사물에게 명령을 내릴 뿐 사물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는다.”한 것을 보면 리기론이 인격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래 명령은 인격적 존재간에 수수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명령의 주체인 리는 인격적 존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율곡은 주자의 리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존재하지만 활동성이 없는 원리적 존재로 규정하면서도 리 자체의 주재성을 논하고 있다. 주자가 리를 기의 근본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달리 리가 기를 주재한다고 하였다. 물론 주자도 리주기(理主氣)라고 하였지만 율곡처럼 리가 기를 주재한다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현중, 『한국 성리학과 중국 성리학의 비교연구 - 주자와 퇴계의 리기·심성론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18 (1998), p.165.

152) 과정철학에서는 이러한 신의 ‘정(定)’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을 통해 우주는 성립되고 따라서 신은 ‘세계 구체화의 원리’이다. 이는 신은 ‘궁극적 한정(限定)’이며, 신 속에서 전 우주의 총합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신과 이 세계와의 밀접한 관련성은 기독교적 유신론 체계가 없는 동아시아에서 태극과 음양의 관계, 조월과 내재성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동희, 『조선조 주자학의 철학적 사유와 쟁점』 (서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8), pp.81-82 참조.

153) 민중서림 편집국, 『한한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2002), p.575.

154) 『전경』, 행록 5장 38절, “祈禱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至氣今至願爲大降; 이경원, 『대순종학원론』 (서울: 문사철, 2013), p.215, “기도 : 상제님을 모시면 조화가 정해지고, 평생도록 잊지 않으면 만사를 알게 된다. 지극한 기운이 지금 이르니 바라옵건대 크게 내려지기를 기원합니다.”

로서 유행하게 하시는 주체는 상제이신 것으로 볼 수 있다.¹⁵⁶⁾ 성리학의 동정(動靜)론은 형이하인 기의 동정에 대한 논의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대순사상에서 ‘정이무극 동이태극(定而無極 動而太極)’은 정(定)으로써 인격적 주체의 속성을 드러내고, 동(動)으로써 동정의 소이인 이법적 태극의 속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도라는 것은 인격적 주체인 상제께서 정하심과 이법적 태극의 원리성을 각각 내포하여 인세에 펼쳐진 것이다. 결국, 대순사상에서는 성리학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이무극(定而無極)’, ‘조화정(造化定)’¹⁵⁷⁾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격적인 주재자를 ‘태극의 이법’¹⁵⁸⁾과 함께 드러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인격신인 상제께서 새로이 개조¹⁵⁹⁾하여 정한 것은 태극의

155) 『태극도통감』, 기원 참조, “道之謂道也者는 定而無極하고 動而太極해야…”

156) 1987년 발간된 태극도의 『태극진경』에 “구천상제께서 짜놓으신 삼계대공사의 度數는 無極의 體인 바 그것을 풀어쓰는 것은 太極의 用을 맡은 나의 소임이니 이 곧 無極은 太極의 원리니라 … 오직 無極은 定이요 太極은 動이니 無極은 體와 理며 太極은 用과 氣니라.(5장 63절)”라고 되어있어, 무극과 태극을 체용론으로 보며, 무극을 理로, 태극을 氣의 개념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는 상제께서 말씀하신 “리가 비록 높으나 태극과 무극의 표면에서 나오며, 무극태극은 일용사물의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며(『무극진경』, 9장 105절, 理雖高出於太極無極之表 不離乎日用事物之間)”의 구절과 모순되는 말이 된다. 상제께서 언급하신 무극태극은 리의 상위 개념으로서 리를 신고 있으며 일용사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리의 속성을 포함한다고 언급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태극도의 구절은 도전께서 태극도를 떠난 뒤 기존의 교리를 바꾸어 무극주, 태극주로 신앙의 대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경전을 수정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대순진리회에서 일부 일어나는 무극과 태극의 개념 혼동은 변경된 태극도 교리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여겨진다.

157) 『동경대전』 『논학문』, “造化者 無爲而化也 定者 合其德定其心也”, 조화는 무이이화를 말하며 정은 그 덕에 합하고 그 마음을 정한다는 것으로, 동화에서는 사람의 마음으로 정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대순사상에서 이러한 조화는 결국 상제님으로부터 정하여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경원, 앞의 책, p.215, “구천상제에 대한 영시의 정신으로 일념을 다하여 기원하면 상제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모든 조화가 생겨나고 그러한 정성에 변함이 없으면 모든 만사를 환히 이는 영몽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즉, 동학의 시천주는 천주를 모심으로 천주의 덕에 합하고 마음을 정하는 것으로 정(定)의 주체가 사람인데 반하여, 대순사상의 기도주는 상제께서 권능으로 조화를 정(定)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158) 김영식, 『주희의 자연철학』 (서울: 예문서원, 2006), p.191, “법칙에 대한 동양의 개념은 서양의 자연법칙(law of nature) 개념과는 같지 않다. 왜냐하면 서양의 자연법칙은 창조주 신이 피조물로 하여금 따르도록 부여한 법인 반면 성리학의 법칙은 하늘이 사물을 생하면서 따랐던 법칙이라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159) 『전경』, 예시 7절.

리로써 천리(天理), 도수(度數) 등으로 볼 수 있다. 천리는 『대순진리회요람』의 ‘경천’¹⁶⁰⁾에서 보듯이 막연히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상제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여기서 천은 하늘의 이치를 뜻하기보다는, 인격천(人格天)으로서 상제님을 뜻한다. 천리는 ‘하늘의 섭리’로 이해할 수 있고 상제께서 역사하신 진리, 곧 대순하신 진리가 되므로 천리는 바로 대순진리가 되는 것이다.¹⁶¹⁾ 또한 도수는 ‘천법을 정하는 것’¹⁶²⁾으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¹⁶³⁾, “인사(人事)는 기회(機會)가 있고 천리(天理)는 도수(度數)가 있나니 그 기회를 지으며 도수를 짜 내는 것이 공사의 규범(規範)이라.”¹⁶⁴⁾의 구절을 참고 할 때, 상제께서 도수를 정리하며, 굳건히 하고, 조화하며, 짜 내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곧 ‘천지공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새로이 정한 것은 천지공사이며 이는 곧 대순진리인 것이다. 결국, 천리와 도수의 모든 지리는 태극에 재한 바이며, 지기를 통해 강세하신 상제께서 천지공사를 정하며 지도로서 인세에 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이상으로 주자의 태극과 비교하여, 대순사상에서의 태극에 관한 특질과 리·기·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대순이 원이며 원이 무극이

160) 경천 : 모든 행동에 조심하여 상제님 받드는 마음을 자나 깨나 잊지 말고 항상 상제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161) 교무부, 「천리(天理)와 인사(人事)의 합일성(合一性)」, 『대순회보』 150 (2013), p.29.

162) 『전경』, 교운 2장 33절, “…道正天地數定千法而理定心法…”

163) 같은 책, 공사 1장 3절.

164) 『대순전경』 3판, 2장 42절.

고 무극이 태극이라.”라는 대순진리회의 창설유래에서 보듯이, 무극과 태극이 서로 같은 것임에 대한 논의는 주자와 대순사상에서 서로 상통한다. 또한 ‘대순’과 ‘원’과 ‘무극’과 ‘태극’은 본체론적 개념을 설명하는 용어로 같은 말로 이해되며, 그 속성은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를 포함하며, 통(通)의 원리가 있고, 한도가 없는 무한계성을 나타내며, 순환의 법칙을 지니며, 무위자연의 이법을 담고 있다.

창설유래에 구절을 살펴보면, 리·기·도를 설명함에 있어 태극이 그 본체가 되며 리·기·도와 소이재, 소유행, 소자출의 관계를 가진다. 대순사상의 지리의 소이재는 “지극한 이치의 실리어 있는 바이다.”의 뜻으로 태극은 지리가 신려 있는 바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지리는 주자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형이상의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에 우위하는 주리론적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태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층위가 차이되며 리가 형이상이라면 태극은 ‘형이상학적 궁극’으로 볼 수 있다. 리는 또한 마음의 법을 정하는 것으로 선(善)의 기준이 되는 양심과 본심으로 작용한다.

태극과 기의 관계를 설명하는 ‘지기의 소유행’은 태극이 “지극한 기운의 말미암아 행하는 바이다.”의 뜻으로 행(行)이라는 동정(動靜)의 주체가 기임을 밝히고 있다. 이로써 형이하의 실질적인 시작이 기이고 이러한 기는 형이상의 리라는 원리를 신고 있음을 말한다. 신화(神化)의 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형이상의 리가 형이하의 기에 작용함은 신(神)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신은 기능과 작용에 있어서의 본체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음양, 굴신(屈伸), 왕래(往來), 상하 등 대립적 통일인 신을 ‘영성한 분’, ‘창생을 광제하시는 분’ 등의 인격적 주체로 드러내 설명한다. 나아가 신비지묘(神秘之妙)에 응하여 그 리를 드러내 밝혀 보이는 것으로 천지, 일월, 사시, 귀신과 그 질서를 같이 하여 신비지묘를 응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인격성을 가진 영성한 존재이신 상제께서 이법성을 인격성으로 드러냄을 말하는 것이다. 즉, 주자가 신의 개념에서 인격성을 제외시키려고 하였던 반면, 대순사상

에서는 신을 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태극과 도와의 관계는 ‘지극한 도가 이로부터 나오는 바’이라고 한 ‘지도의 소자출’을 통해 볼 때, 태극이 흘러 퍼져 만물이 발육·유행한 것을 도라고 여길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지도, 즉 대도는 대순진리를 일컫는다. 이 대순진리는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진리로써 세계창생을 살리는 도가 됨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도는 태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상제께서는 이를 주재하여 천지공사로서 세상에 구현하신 것이다.

태극의 특질에 관해서는 ‘본체로서의 태극’과 ‘태극의 주재로서 상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순사상의 리·기·도를 설명함에 있어 태극이 그 본체가 되며 리·기·도의 소이연(所以然)이 된다.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이법은 생생(生生)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생생이라는 태극의 자기현현은 반드시 상제의 주재하심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생’의 이법은 본체로서의 태극으로부터 실려, ‘상생의 도’로 나오는 상제께서 정한 의지인 것이다. 주자의 본체론에서의 생생의 의지는 이법적인 원리에 이루어지는 우주 본연의 법칙이지만, 대순사상에서의 본체론은 상제께서 이러한 생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자에게 있어 ‘주재(主宰)의 천’은 ‘창창한 천’을 주재하는 리(理)이다. 하지만 리는 사물을 주재하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사물이 제대로 다스려지고 처리되는 광정 또는 그 결과를 의미한다. 주자가 말하는 이법천이란 자연성에 근본한 것으로 공허할 수 밖에 없으며, 태극이기의 실체란 존엄하지도 않고 자신의 의지에 적극적인 수도 없는 정적인 것이다. 즉 주자학적 전통에서 신관과 귀신관이 이법적이거나, 이에 반하여 대순사상에서는 이러한 이법 가운데 인격적 상제관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상제께서 ‘생장염장의 사의를 쓴다는 것’은 태극의 체를 사용함을 뜻하고 용에 있어서는 ‘음양의 이치’를 통해 세상을 조화함을 말한다. 결국 우주의 기능과 작용에 있어서 본체는 바로 상제이신 것이다. 이러한 태극의 오묘함을 체로 하는 인격적 상제관은

성리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순사상의 특질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의미를 정리해보자면, 첫째는 대순사상의 본체론이 성리학적 본체론을 함의하고 있으며 그것을 포괄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이는 대순사상의 본체론적 특질을 밝히는 측면에서 성리학과의 비교연구에 대한 용이성을 밝혀 드러낸 바이다.¹⁶⁵⁾ 둘째는 대순사상의 본체론에 있어 존재론적 측면에서의 태극과 기능·작용의 측면에서의 상제의 작용하심이라는 본체의 두 측면에서 조망해 보았는데, 이는 본체론적 관점에서 태극과 상제의 관계를 정립하여 대순사상의 본체론에 대한 시각을 제시한 것이다. 셋째는 태극이라는 이법적 본체론에 인격적 상제의 주재하심을 ‘정이무극 동이태극’을 통해 설명한 것인데, 이는 종교학적 관점에 있어 궁극적 존재에 관한 인격성과 이법성의 모순에 대하여 논한 것이다. 넷째는 본체로서의 태극으로부터 나온 도라는 것이 상제의 주재하심에 속하는 것을 말하고, 이로 인해 양심과 도덕적 행위를 지켜야함에 종교적 당위성을 언급하였다. 다섯째는 대순과 원의 본체론적 속성과 무극과 태극과의 관계를 살펴봄이며, 여섯째는 대순사상에서의 리·기·도에 대한 개념과 태극과의 관계 정립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 주로 인용한 『태극도통감』은 1956년 당시 태극도에 계시던 도전께서 직접 쓰신 원본에 기초한다. 또한 이는 종단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포정문 옆 벽면에 일부 수정되어 ‘대순진리회 창설 유래’로 표기 되어있다. 여기에서 많은 구절들이 성리학적 용어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도주께서 종교적 기원과 취지를 설명함에 있어 성리학을 용어를 방편적으로 사용하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본체론에 있어서 대순사상과 성리학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는 『전경』에 국한하여 상제관과 본체론을 정립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전경』은 원전으로서 그 중요함의 강조는 더할

165) 본 논문은 성리학의 본체론으로 대순사상의 본체 개념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는데, 이는 철학과 대순종학(신학)의 결합으로 철학적 입장에서 볼 때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나위 없겠지만, 도주께서 태극도 당시에 밝혀 놓으신 설명을 포함한다면 대순사상에 대한 연구를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제께서는 유불선을 모든 법을 합하여 쓴다고 하였고, 또한 주자를 유교의 중장으로 세우셨다. 이는 대순사상에서 성리학이 결코 간과 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성리학과의 비교를 통해 대순사상의 본체론과 더불어 생성론과 상제관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성리학과의 비교연구는 대순사상의 학문적 연구와 교리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典經』

『大巡指針』

『大巡眞理會要覽』

『大巡典經』 3版

『東經大全』

『無極大道教概況』,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역, 일본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1925.

『周易』

『朱子大全』

『朱子語類』

『朱子全書』

『朱熹集』

『太極圖說解』

『太極道說』

『太極道通鑑』, 부산: 태극도, 1956.

『太極解義』

고남식, 「理定心法과 修心の 궁극정 性向」, 『대순사상논총』 13, 2001.

대순진리회 교무부, 『종단 대순진리회』,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78.

_____, 「천리(天理)와 인사(人事)의 합일성(合一性)」, 『대순회보』 150, 2013.

_____, 「상생의 법리」, 『대순회보』 153, 2014.

김경재, 『이름 없는 하느님』, 서울: 삼인, 2010.

김경호, 『동양적 사유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파주: 글항아리, 2012.

김영식, 『주희의 자연철학』, 서울: 예문서원, 2006.

김치완, 「천·상제론과 리기론을 중심으로 본 다산 인간관의 기초」, 『대동철학』 34, 2006.

- 남상호, 「중국철학의 본체론」, 『동서철학연구』 41, 2006.
- 류정동, 「정·주의 태극론」, 한국동양철학회 엮음, 『동양철학의 본체론과 인성론』,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4.
- 몽배원, 『성리학의 개념들』, 홍원식 외 3명 옮김, 서울: 예문서원, 2008.
- 무리아마 지준(村山智順), 『조선의 유사종교』, 최길성·장사언 역,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 민중서림 편집국, 『한한대자전』, 경기과주: 민중서림, 2009.
- 박재현, 「대순사상에서의 무극과 태극 그리고 대순의 의미 고찰」, 『대순사상논총』 22, 2014.
- 안은수, 『주희의 자연관 형성의 두 원천』, 서울: 문사철, 2010.
- 오하마 아키라, 『범주로 보는 주자학』, 이형성 옮김, 서울: 예문서원, 1997.
- 왕쥬위, 「대순사상의 종교 문화 조화정신」, 『대순사상논총』 22, 2014.
- 윤기봉, 「신인조화의 종교적 이해」, 『대순사상논총』 3, 1997.
- 윤사순, 「동양 본체론의 의미」, 한국동양철학회 엮음, 『동양철학의 본체론과 인성론』,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4.
- 이경원, 『대순종학원론』, 서울: 문사철, 2013.
- 이동희, 『조선조 주자학의 철학적 사유와 쟁점』, 서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8.
- _____, 『동아시아 세계관의 원천 주자』,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 이상욱, 「현대 중국 본체론 논쟁의 의미」, 『대동철학』 37, 2006.
- 이현중, 「한국 성리학과 중국 성리학의 비교연구 - 주자와 퇴계의 리기·심성론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18, 1998.
- 임현규, 「주·육태극논변과 형이상학」, 『한국철학논집』 17, 2005.
- 장복동, 「다산 윤리사상의 인간학적 특질」,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장입문, 『도』, 권호 역, 서울: 동문선, 1995.
- _____, 『기의 철학』, 김교빈 옮김, 서울: 예문서원, 2012.
- _____, 『리의 철학』, 안유경 옮김, 서울: 예문서원, 2004.
- 장윤수, 『정주철학원론』, 서울: 이론과 실천, 1992.

- 장원석, 「주역에서 시간이란 무엇인가? - 화이트헤드의 시간의 획기성 이론과 비교하여」, 『화이트헤드연구』 3, 2000.
- 정병석, 「태극 개념 형성의 연원적 배경과 해석」, 『철학』 88, 2006.
- 정상봉, 「주자형이상학의 심층구조 - 태극에 대한 이해」, 『한국 철학논집』 33, 2012.
- 주광호, 「주희 태극론의 ‘생성’의 원리」, 『철학연구』 98, 대학철학회, 2006.
- _____, 「주희와 육구연의 ‘무극태극’ 논쟁」, 『철학연구』 36,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08.
- 차선근, 「종단 대순진리회의 변천 과정과 무극 태극의 관계」, 『대순회보』 94, 2009.
- _____, 「정역사상과 대순사상의 비교연구」, 『종교연구』 60, 2010.
- _____, 「대순진리회와 감천 태극도장의 사상 비교」, 『대순회보』 109, 2010.
- 최동희·이경원, 『대순진리의 신앙과 목적』,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2000.
- 최영진, 「대순사상의 역학적 조명」, 『대순사상논총』 20, 2014.
- 최진덕, 「주자학의 이기론과 귀신론」, 『양명학』 23, 2009.
- 최치봉, 「대순사상의 신관연구」, 대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철학대사전』, 서울: 동녘, 1997.
- 한형조, 「주희 형이상학의 구조와 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엮음, 『형이상에 대한 동서양의 철학적 접근』, 서울: 정아, 1998.
- 후외러, 『송명이학사2』, 박완식 옮김, 서울: 이론과실천, 1995.

▪Abstract▪

A Study on the Taegeuk in Daesoon Thoughts

Choi Chi-bong

Daejin University

This thesis strives to identify the peculiarities of Taegeuk (the yin-yang) and the relationships of Ri (reason/cause), Ki (Energy) and Do (duty). The Taegeuk is related with the Sangjekwan (highest ruling entity), Rikiron (noble theory) and the Boncheron (ontology) of the Daesoon Sasang (Daesoon Thoughts) which therefore is a priority research topic. Although said, due to the lack of original materials and the difficulty to understand the topic, the research is insignificant. Within chapter II of this thesis, the concept of the Taegeuk, the Rigi and Do from the perspective of Juja is observed. In chapter III, the relationship of Moogeuk and the Taegeuk which is mentioned in the foundation origin of the Daesoonjinrihoe. In addition, the Taegeuk and Eumyang's noble perspectives are observed through the comparison of Juja and Daesoon Sasang. In chapter IV, the aspects of Taegeuk's supervision is observed through the noumenality of the Taegeuk which is shown in the Daesoon Sasang along with the concept of mythology.

Within the overall context, the Daesoon Sasang's ontology has similar structures with Juja's Taegeuk. This can be stated that

Jojeongsan who had found the system of doctrine had not acknowledged Juja's theories but have rather interpreted Kangeungsan's ontology in a Neo-Confucianism to better let the people understand. This can be observed as expediential teachings. The metaphysical Ri and the physical Ki's separation, and the relationship of matters and functions of the Taegeuk and Do can be stated to be similar within an overall outline in the aspect of the Rikiron. The Taegeuk becomes the primary figure whilst explaining Daesoon Sasang's Ri/Ki/Do and also becomes the Soiyeon (such reasons). Extreme Do is drawn from the Taegeuk and as Do resembles the trend of the Taegeuk, it is referred as the origin of all the things in the universe. However, Juja vigorously tried to witness God's notions in a principled, atheistic way. However, the main principle is regarded as divine in the aspect of the universe's functions and effects in the Daesoon Sasang. The personal Sangjekwan which embodies these profound and mysterious Taegeuk, is Daesoon Sasang's peculiarity which cannot be found in Neo-Confucianism. Therefore, in the Daesoon Sasang, both the order and character are being regarded in the ontology through personal divine.

Key Words : Daesoonjinrihoe, Juja(朱子), Taegeuk(太極), Moogeuk(無極), Ri(理), Ki(氣), Do(道), ontology, Sangjekwan

◎ 투 고 일 : 2014년 5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4년 7월 7일~18일

◎ 계 재 확 정 일 : 2014년 7월 27일